

검찰원,公安部,생태환경부

〈환경오염 범죄사건 처리 증거 지침〉인쇄 발부

최근 최고인민검찰원 판공청,公安部 판공청,생태환경부 판공청 (이하 '세 부문')에서는 공동으로 〈환경오염 범죄사건 증거 처리 지침〉을 인쇄 발부했다.

지침은 조목화된 증거 리스트를 통해 공간기관이 규범적이고 고효율적으로 증거를 수집하도록 인도하며 검찰기관의 심사 중점과 방향을 한층 더 명확히 하여 환경오염 범죄사건 처리의 질적 수준과 효율을 끊임 없이 향상시키게 된다.

지침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환경오염 형사사건을 처리함에 있어서 '전면적이고 객관적', '법에 의한 규범화', '증거재판'의 세가지 원칙을 수립해야 하는데 이는 합법적이고 과학적이며 규범적이고 전면적이며 객관적인 수집, 고정, 검토, 증거의 운용이다. 또한 증거를 사실인정과 법률적용의 기초로 하여 사건 처리의 질과 효과의 상호 통일을 확보해야 한다.

지침은 다음과 같은 것을 명확히 했다. 범죄사실에서 객관적 증거 수집에 중시를 돌려야 하는바 오염물질의 구체적인 종류를 밝혀내어 범죄혐의자가 배출, 쏟아버리거나 (倾倒) 또는 처리 행위를 실시했음을 증명하며 〈환경오염 형사사건 처리 법률 적용에 관한 약간의 문제해석〉에 명시된 '환경을 엄중하게 오염하고', '상황이 엄중한 경우', '상황이 특별히 엄중한 경우'에 부합되어야 한다. 동시에 환경오염과 배출, 쏟아버리고 처리하는 행위간의 인과관계를 잘 판단해야 한다.

지침은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환경오염 형사사건을 처리할 때에는 형사책임 능력과 관련된 증거를 수집하고 심사하여 단위범죄와 자연인범죄를 정확하게 구분해야 한다. 행위자의 범행 동기와 목적 및 사전모의 상황 등을 조사하여 밝혀야 한다. 주관적 죄면 변명이 있을 때에는 임직상황, 직업경력, 전업배경,

양성경력, 본인이 동종 행위로 행정처벌 또는 형사처벌을 받은 상황 및 오염물질의 종류, 오염방식, 자금흐름 등 방면의 증거를 수집, 심사하는 데 중시를 돌려 기타 증거와 결부하여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판단해야 한다.

지침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자수, 공동 범죄 지위와 역할, 자백, 생태환경 복원 등 관대한 정황의 증거와 전과약행 등 중한 정황의 증거를 포함하여 환경오염 범죄혐의자의 법정(法定), 작정량형(酌定量刑)에 관한 증거를 전면적으로 수집, 심사하여 사건의 정죄가 정확하고 형량이 적정하도록 담보해야 한다.

세 부문 관계자는 다음과 같이 표시했다. 각급 검찰기관, 공간기관, 생태환경부문은 지침의 요구를 관찰하고 직능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며 협력을 강화하고 징벌합력(懲治合力)을 형성할 것이다. 생태환경부문에서는 위법행위를 조사처리하는 과정에 수집한 위법행위와 관련된 증거를 타당하게 보존하고 범죄 구성 혐의가 있어 형사책임 공안기관에 사건 및 관련 자료를 이송할 것이다. 공간기관에서는 환경오염 범죄사건을 수사처리할 때 연계와 연구판단을 강화하고 철저한 조사에 중시를 돌리며 법에 따라 관련 증거를 수집, 고정, 보완하고 법에 따라 체포 비준과 심사 기소의 이송을 청구하여 사건 처리의 질을 부단히 향상시킬 것이다. 검찰기관에서는 공간기관이 체포 비준을 제정하고 심사 기소로 이송한 사건에 대해 사실과 증거를 전면적으로 객관적으로 심사하여 법에 따라 결정을 내림으로써 환경오염 범죄사건에 대한 심사사업을 한층 더 규범화하고 사건 처리의 질과 효율을 제고시킬 것이다.

지침은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환경오염 형사사건을 처리할 때에는 형사책임 능력과 관련된 증거를 수집하고 심사하여 단위범죄와 자연인범죄를 정확하게 구분해야 한다. 행위자의 범행 동기와 목적 및 사전모의 상황 등을 조사하여 밝혀야 한다. 주관적 죄면 변명이 있을 때에는 임직상황, 직업경력, 전업배경,

/생태환경부

멀티탭·스피커·트렁크도 도청, 도촬할 수 있다?

—돈화시인민법원 불법 도청, 도촬 전용 기자재 생산 판매 사건 판결

과학기술이 신속하게 발전하는 오늘날 사생활 보호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몰래카메라 사건은 물론 몰래카메라 수단도 나날이 은밀해지고 있는바 일부 멀티탭, 스피커, 트렁크, 물컵 등 일상생활용품에도 불법분자들에 의해 도청장치나 도촬(偷拍) 장치들이 설치되어 대중들에게 불안감을 주고 있다.

최근 돈화시인민법원은 불법으로 도청, 도촬 전용 기자재를 생산, 판매한 사건을 판결했다.

사건 회고

피고인 김모(가명)는 평소 수공예작업을 즐겨 하는데 우연히 인터넷에서 도청기, 몰래카메라를 판매하면 불법리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에 김모는 요형심리가 싹뻗고 손님을 끌기 위해 소셜미디어에서 '몰카' 동영상을 검색한 뒤 댓글에 암시적인 이모티콘이나 글을 남기고 고객의 주문을 기다렸다.

2023년 10월부터 11월까지 김모는 국가 관련 부문의 허가를 받지 않은 상황에서 인터넷에서 '항공촬영용'이라는 핑계로 핀홀 카메라 부품을 주문하고 카메라 모듈, 소형 전자 변

압기 등 전원 공급 장치와 콘센트, 멀티탭, 블루투스 스피커, 컴퓨터 공유기, 트렁크 등 일상용품들과 불법 조립하여 도청, 몰래카메라 전용 기자재를 생산 개조한 후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고 속달로 우편 발송했다. 조사를 거쳐 김모는 도청, 도촬 전용 기자재 10개를 불법으로 생산, 판매하여 도합 9,855 원의 불법소득을 챙겼다.

2023년 10월, 피고인 리모(가명)는 인터넷에서 김모의 암시성 댓글을 보고 순식간에 알아차렸다. 불법리익을 챙기려고 리모는 주동적으로 김모와 연계해 그와의 합작을 제기했다. 바로 자신이 책임지고 구매자와 연락해 대금을 받고 김모가 도청, 도촬 전용 기자재를 생산 개조하여 물품을 발송하는 것이었다. 이에 김모는 동의했고 두 사람은 도청, 도촬 전용 기자재 3개를 불법 생산, 판매했다. 여기서 리모는 3,050 원에 이르는 불법소득을 챙겼다.

감정 결과 피고인 김모와 리모가 불법으로 생산, 판매한 멀티탭, 트렁크 등은 전부 도청, 도촬 기자재에 속했다.

사건 발생후 피고인 김모는 공간기관에 체포되었고 피고인 리모는 공간기관의 전화로 소환되었다. 그들은 범

죄사실을 사실대로 진술하고 모든 불법소득을 상납했다. 피고인 김모와 리모는 자원적으로 유죄 인정 처벌 서약서에 서명하고 죄와 벌을 인정했다.

법원 재판

법원은 심리를 거쳐 다음과 같이 인정했다. 피고인 김모와 리모가 도청, 도촬 전용 기자재를 불법으로 생산, 판매한 행위는 이미 도청, 도촬 전용기자재 불법 생산판매죄를 구성했으므로 공소기관에서 고소한 죄명이 성립되며 법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 2023년 10월에 3개의 도청, 도촬 전용 기자재를 생산, 판매한 것은 피고인 김모와 리모가 공동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므로 공범에 해당하고 그 역할이 비슷하기에 주범과 종범을 구분하지 않는다. 피고인 김모는 불잡힌 후 자신의 범죄사실을 사실대로 공술하였는데 이는 자백에 속하므로 법에 의하여 경하게 처벌할 수 있다. 피고인 리모는 주동적으로 출두하여 자기의 범죄사실을 사실대로 공술하였는데 이는 자수에 속하므로 법에 의하여 자원적으로 죄를 승인하고 처벌을 승인하였기에 법에 의하여 관대하게 처

리할 수 있다.

법원에서는 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판결했다. 불법으로 도청, 도촬 전용 기자재를 생산, 판매한 죄로 피고인 김모를 유기도형 1년, 집행유예 1년 6개월에 처하고 벌금 1만 원을 안긴다. 피고인 리모는 불법으로 도청, 도촬 전용 기자재를 생산, 판매한 죄로 구역 4개월, 집행유예 6개월에 언도하고 3,000 원의 벌금을 병과한다. 법에 의하여 두 사람의 불법소득을 추징하여 국고에 상납하며 범죄도구를 법에 의하여 몰수한다.

현재 사건의 1심 판결은 이미 효력을 발생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당부했다. 광범한 대중과 상인들은 규정에 따라 합법적으로 경영하고 특정 상품 판매시 반드시 엄격하게 국가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관련 부문의 비준과 허가를 거쳐야 한다. 소비자들은 법률의식을 강화해 도청, 도촬 설비를 임의로 구입하거나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대중들은 경각성을 높여 자신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사생활이 '로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만약 도청, 도촬을 발견하면 즉시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리전기자

련루 금액 3,000 여만원, 훈춘 경찰 특대사건 해명



일전, 훈춘시공안국 경제수사대대는 사건 련루 금액이 무려 3,000 여만 원에 달하는 불법경영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2명의 범죄혐의자 한 씨(녀, 47세)와 김 씨(남, 47세)를 나포했다. 이번 조치는 불법 외환결제 범죄를 효과적으로 단속하고 인민대중의 재산을 보호하며 금융 질서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했다.

올해 2월초, 훈춘시공안국 경제수사대대는 일상사업에서 해외 돈세탁과

관련된 불법경영 단서를 발견했다. 관련 계좌내의 6만건이 넘는 거래 기록을 분석하고 대조한 결과 대량의 의심스러운 외환 결제를 발견했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관 양씨는 "용의자의 계좌를 나포했다. 이번 조치는 불법 외환결제 범죄를 효과적으로 단속하고 인민대중의 재산을 보호하며 금융 질서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했다."

올해 2월초, 훈춘시공안국 경제수사대대는 일상사업에서 해외 돈세탁과

수사대대는 용의자의 거래 대상, 관련자가 많고 범죄사실이 광범위한 데 대비해 고정된 증거를 찾고 일격에 돌파하기 위해 료닝, 산둥, 광서, 하북, 절강, 허난 등 여러 성에서 교차 수사를 전개했다. 한달간의 노력으로 경찰은 성공적으로 완전한 증거사슬을 구축했다. 사건은 공안부의 깊은 주목을 받았으며 중점 감독처리 사건에 포함되었다.

3월 중순, 경찰은 연길시에서 정밀

검거를 실시해 성공적으로 한씨를 체포했다. 이후 경찰은 여러 수단을 동원하여 한국으로 도주한 김씨를 설득해 잘못을 뉘우치고 자수하도록 인도했으며 결국 심리적 방어선이 뚫린 김씨는 귀국해 처벌을 받겠다는 뜻을 밝혔고 3월 27일 주동적으로 훈춘 경찰에 자수했다.

한씨와 김씨는 2013년부터 금융부문의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인민폐와 한화 불법환전 작업을 진행해 국가의 외환관리 질서를 심각하게 교란했음을 인정했다. 현재 두 사람 모두 형사적 강제조치를 받았으며 법적 처벌을 기다리고 있다.

경제수사대대 대대장 소정림은 "김씨가 귀국해 주동적으로 자수한 것은 공간기관의 성과를 보여주었을 뿐만 아니라 경외로 도주한 범죄자들에 대한 엄중한 경고이기도 하다. 귀국해 자수하는 길만이 살길이다."라고 말하며 "불법 외환 결산은 법률을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개인재산 손실도 초래할 수 있기에 시민들은 정규적인 금융기구를 선택해 외화업무 처리함으로써 불법분자의 침해를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동시에 경찰측은 각종 경제범죄에 대한 타격 강도를 지속적으로 높여 사회경제 질서의 안정과 조화를 보장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오건기자

사례로 법 말하기-9

성적 침해 받은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후 기소할 수 있는가?

사례

곽모는 13살에 성적 침해를 받았는데 당시 나이가 어리고 또 부모에게 말하기 부끄러워 혼자 묵묵히 이 고통을 이겨내야 했다. 성년이 되어 많은 법률지식들을 배우고 난 후 곽모는 과거에 당한 상해에 대해 기소를 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하지만 소송 시효의 초과 여부를 모

르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경우 성년이 된 곽모는 기소할 수 있는가?

법률해석

기소할 수 있다. 민법전 제 191조의 규정에 따르면 성적 침해를 받은 미성년자의 손해배상 청구권 대해 기소를 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하지만 소송 시효의 초과 여부를 모

/인민넷 - 조문판

Advertisement for Yanbian Wude Sauce Wine. It features a woman in a white dress holding a blue bottle of sauce wine. The background is dark blue with traditional Chinese patterns. Text includes '모덕 된장술' (Mudeok Ddangjungsul) and '延边悟德酱酒有限公司' (Yanbian Wude Sauce Wine Co., Ltd.).

延边悟德酱酒有限公司

电话: 0433-2591258 156-0433-8588